

서울디자인재단-서울시설공단 MOU 체결 회의록

회의일시	2017. 7. 12 11:00~:11:30	장소	DDP 살림터 2층 미디어룸	작성자	패션산업팀 박주은
참석자	서울디자인재단 이근 대표, 유석윤 단장, 박삼철 소장, 박진배 본부장, 김윤희 본부장, 강문석 본부장, 유주이 팀장, 최주원 팀장, 이소미 팀장, 정승연 선임, 천윤영 선임, 한라경 선임, 손영준 선임, 남지수 주임, 조혜리 주임, 박주은 주임 서울시설공단 이지윤 이사장, 이효재 본부장, 백인걸 처장, 윤철섭 팀장, 허수강 차장, 박민호 차장 (22명)				

회의안건 패션문화 중심지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 논의

■ 개요

- 목적: 서울디자인재단-서울시설공단의 상호협력 방안 논의
- 일시: 2017. 7. 12(수) 11:00 ~ 11:30
- 장소: DDP 살림터 2층 미디어룸
- 참석대상: 서울시설공단 이지윤 이사장 외 5명, 서울디자인재단 이근 대표 외 15명
- 회의내용:
 - 서울시설공단의 관리 시설물 활용한 사업 협력 추진
 - 높아진 시민 눈높이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함,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 및 과잉디자인 지양 등
 - 재단에서 '유어스빌딩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한 적 있음, 충분히 실현가능한 플랜으로 동대문의 허브기능을 활성화해야 할 것
 - 패션 분야 교육 및 홍보 상호 협력
 -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재단과 공단이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창구가 필요, 서울시설공단에서도 디자인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획할 수 있어야 함
 - DDP 브랜드 사용과 관련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협력 이행
 - DDP 브랜드네임의 가치가 큼, DDP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이에 상응하는 기대수준이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 차원에서 붙이고 있는 '서울'이라는 명칭의 존치여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유어스와 디디피의 연결성을 강화해야 함 예시) 유어스-디디피 간 통일된 컨셉으로 동선 연결
 - 기타 민관 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상호 합의한 사항
 - DDP 때문에 상권이 어려워졌다는 말은 맞지 않음, 지금은 어느 상권이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상인들 스스로도 변화할 필요가 있음
 - 중국시장이 크다고 해서 지나치게 맞춰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오히려 동대문의 특수성을 보여주고 우리의 문화적 코드를 살릴 수 있어야 함
 - 시장으로서의 동대문이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으로 동대문을 조성해야 함